

정지훈 서울당서촌 2-1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맑음

제목 : 사촌형네 가다

사촌형네 갔다. 나는 사촌형인 지찬이형과
지찬이형 ~~매도생인~~ 유경을 만났다. 나는 지찬이형
딱지를 봤다. 근데 지찬이형이 대왕딱지와 작은
딱지를 줬다. 나는 너무나 기뻐서. 그리고 방방
장에서 방방을 탔는데 팔굽치가 까졌다.
너무 스릴러웠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아픔
을 가먹었다. 술래잡기와 가장 높이뛰기를 했다
그리고 나왔는데 2재컴마가 구슬아이스크림을 사
주셔서 맛있게 먹은 후 지찬이형과 내가
공을 가지과와서 축구를 했다. 중간에 ~~화~~가
찬 공이 돌에 맞아 하늘로 떠서 유경이머리에
맞았다. 나는 미안해라고 사과한 후 집으로 돌아와
샤워를 한 후 게임을 아주 조금했다. 아버지가
테리러 와서 아버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.
사촌형 네가 너무 재미있었다. 또 가고 싶다